

# 한화큐셀 김희철 대표 “인수 총괄”

## 인수 후 통합작업 TFT 팀장 내정 ... 프로젝트 타이탄 마무리

한화그룹이 최근 삼성그룹과의 빅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실무진에게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한 소통으로 지향점과 가치관을 공유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빅딜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통합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PMI TFT 팀장에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철 대표이사는 양사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인수 후 통합작업을 총괄하며 삼성의 계열사들과 한화그룹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12월 PMI TFT를 조직하고 2015년 1월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해 2-3개월 가량 진행된 이후 최종적인 계약은 2015년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FT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방면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조직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8년 한화그룹에 입사해 한화석유화학의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거치는 등 화학통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자회사인 한화솔라윈 경영총괄 상무와 한화큐셀 대표이사 전무를 역임하며 태양광 사업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2012년 한화큐셀 대표이사 상무에서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08>